

# “유튜브 BGM, 비용·저작권 걱정 NO!... AI가 똑딱”

(배경음악)

## AI 기업인

###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

인공지능(AI)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예술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AI로 작사, 작곡을 하는 AI 음악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분야의 국내 선두 기업인 포자랩스는 딥러닝과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해 작곡 및 작사를 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AI가 무료로 작사를 해주는 ‘플로우박스(FlowBox)’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AI가 작곡한 BGM(배경음악)을 서비스하는 ‘멜리(Melly)’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 직업으로 떠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곡을 BGM으로 사용하다 보니 영상을 보다 보면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이 3000곡 정도 제공되지만 10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4000만명에 이르고, 하루에 수십만개, 1분에 400시간 분량의 콘텐츠가 올라오다 보니 곡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곡을 만들고 싶지만 비용이 50만~100만원 정도 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 업무가 막혀요.”

“멜리”의 BGM은 곡당 5만원 정도로 가격을 정해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 허 대표가 음악 AI 사업을 시작한



것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재학 시절부터 뇌파에 관심이 많고 ‘인공지능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짚 해왔기 때문이다.

“재미없고 어려운 문제도 AI로 하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예술에 관심을 가졌고, 제가 음악 밴드에서 작곡도 했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친한 학부 동기이자 밴드를 같이 하던 정구봉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랩 가사를 쓰던 친구라 ‘같이 하자’고 뜻을 모았어요.”

그는 대학 시절 마지막 학기를 연장하면서 AI 개발에 나섰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음악 인공지능을 커다’라는 융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참여했는데, 포자랩스팀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업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친구들과 AI 스터디 모임으로 출

유튜버 대상 작곡 ‘멜리’ 운영 연세대 재학 시절부터 AI 관심 AI작사작곡 프로그램 美서 호응

AI, 고정관념 없어 복제도 없어 올 샌드박스와 협력해 판매 확대



발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지원을 받으면서 다음해 1월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제작년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음악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서도 AI 작사·작곡 프로그램 ‘뮤직쿠스’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웹과 모바일에 출시한 AI 작사 프로그램 ‘플로우박스’는 팝, 록, 영화 주제곡 등 1000곡 정도를 학습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로우박스에 ‘사랑’, ‘이별’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만든 문장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단어를 지정해 리듬을 선택하고 리듬을 클릭하면 대체할 수 있는 문장도 추천해줘 가사가 금세 완성되는 것.

“작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작곡이 안 되는 이상 AI 작사만으로는 수익모델을 찾기 힘들었어요. 현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멜리’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AI를 통해 작곡한 BGM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반응도 보고 있는데, 5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BGM로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AI가 혼자서 BGM을 작곡하지 못하고, 작곡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부터, 악기 세팅을 하고, 길이를 조정하고, 비트를 넣고 편곡해 최종적으로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작곡가가 담당한다. 다만 AI가 작곡을 도와주다보니 작곡가에게 들어가는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인터넷에 있는 MP3 파일 등은 AI에 학습을 시키지 못해 AI에 적합한 미디 데이터가 필요해요. 작곡가가 직접 학습용 미디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작곡을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장르가 힙합인지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인지, 몇 분짜리인지, 게임 영상에 쓸 건지 여행 영상에 쓸 건지 작곡가에게 알려주면 적합한 음악을 만들게 되요. 곡을 만들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더 정확하게 원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허 대표는 “AI가 음악에서 돋보이는 것은 ‘고정관념이 없어 자가 표현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보면 생성하는 것이 유사하지만 AI

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버들에게 아직은 ‘음악은 무료다’는 인식이 있어서 올해는 ‘음악을 산다’는 개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40~50명의 유튜버들이 저희 BGM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몇 천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예요.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대형 멀티채널네트워크(MCM)들과 협력해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BGM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작곡가와 협업이 아닌 AI가 단독으로 작사·작곡을 한 곡이 보급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해질까. “아직은 AI가 곡을 만들 수 있지만 퀄리티가 부족해 ‘무료라면 몰라도 돈을 주고는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아요. 하지만 근시일 내에 AI가 단독으로 BGM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 빅데이터-AI 신약 벤처, 50억 투자 유치

김완규 이화여대 교수 창업 유전자 약물 패턴 분석 기술

이화여자대학교 김완규 교수(사진)가 창업한 빅데이터-AI(인공지능) 신약 개발 벤처기업 ‘카이팜’이 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총 2만여 개의 인간 유전자들이 약물 처리에 의해 변화하는 발현 패턴을 분석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시리즈A 50억 투자를 유치했다.

5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카이팜은 김완규 교수 연구팀이 2018년 창업한 빅데이터 및 AI 기반 신약개발 벤처로, 독자적인 생명정보 분석, 빅데이터 마이닝 및 가상탐색 기술을 통한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세포에 약물을 처리해 약 2만여 개에 달하는 인간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그 약물의 작용 기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개발 중인 약물의 전사체의 패턴 변화가 기존의 어떤 약물의 작용과 유사한지 조사하거나 특정 질병 상태의 패턴과 비교해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카이팜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천 종 약물 처리에 의한 전사체 표준 데이터베



이스(KMAP프로젝트)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약물 작용 기전을 해석하고, 약물의 타겟 또는 적응증을 예측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연구소, 대학 및 제약사와 신약 공동 개발 및 분석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카이팜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 S) 과제 선정 및 시드 투자에 이어 이번 KB인베스트먼트 등 7곳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받게 돼, 총 70억의 누적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김완규 교수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09년부터 이화여대 대학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생명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으로 AI 및 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 교수 “앞으로 데이터 과학과 의생명과학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의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솔트룩스·뷰노·루닛 등 코스닥 ‘노크’

>> 1번 ‘AI 간판 기업들’서 계속

AI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솔트룩스는 한국투자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AI 사업으로 돈을 버는 곳이 거의 없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AI로 지난해 190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이익도 내고 있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트룩스는 기술성 평가를 마치는 대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수요예측에 돌입하면 올해 안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솔트룩스는 2003년 자연어처리 기업 시스템에서 출발해 기술 번역 전문업체인 모비코가 시스템을 흡수합병한 이후 2005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2018년 현대기술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320억원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도 유치했다.

AI 의료 진단 솔루션 개발기업인 뷰노는 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뷰노는 흉부 X-ray 영상 판독을 보조하는 AI인 ‘뷰노메드 체스트엑스레이’가 최근 병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의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에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 최초 AI 의료 기기 허가를 받은 골연령 진단보조 ‘뷰노메드 분에이지’, 안전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뷰노메드 펀더스’를 보유한 만큼 기술성 평가 결과를 자신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뷰노는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총 15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AI 영상진단 솔루션 업체인 루닛은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설립된 루닛은 최근 300억원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해 큰 관심을 모았으며, 2017년 CB인사이드의 ‘AI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돼 주목받았다. 주력 제품은

영상 진단을 돕는 ‘루닛 인사이트’로, 흉부 엑스선용 ‘루닛 인사이트 CXR’, 유방 촬영술용 ‘루닛 인사이트 MMG’와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알려주는 ‘루닛 스크프’ 등을 보유하고 있다.

AI 플랫폼 기업인 마인즈랩은 주관사로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를 선정하고 올해 IPO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B인베스트먼트, NH투자증권, BNK캐피탈 등으로부터 180억원의 규모의 프리 IPO를 유치했다. 2014년 설립된 마인즈랩은 2018년 매출 약 106억원을 기록해 2016년 약 25억원에서 2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판테 크위크에서 우수기업상을 수상했으며, AI 관련 장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 첫 공모주인 위세아이텍은 최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에서 1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흥행에 성공해 당초 제시한 가격범위(1만~1만1200원)를 뛰어넘는 1만2000원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1990년 설립된 위세아이텍은 빅데이터 분석 회사로 2015년 머신러닝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했다. 지난해 매출 196억5300만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